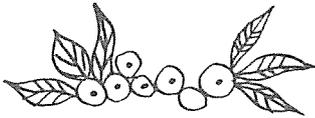


心不全症 이야기 (上)

심장질환의 조기치료로 심부전증을 예방합시다

○ 심장의 역할

□ 심장은 전신에 혈액을 보냅니다.



심장은 정맥으로부터 혈액을 받아들여 동맥을 통하여 철새없이 신선한 혈액을 전신에 순환시키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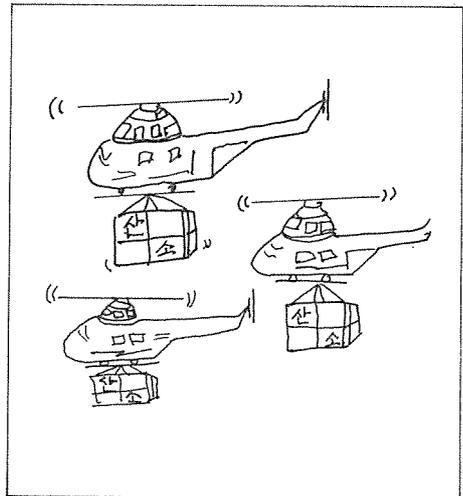
혈액은 산소나 영양소를 몸의 여러곳에 운반하고 또 여러곳에서 배출된 노폐물을 운반해내서 신장이나 폐를 통해 몸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벽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제일 바깥쪽을 심외막(心外膜), 중간층을 심근(心筋), 제일안쪽을 심내막(心内膜)이라 하며 이 심내막의 일부는 주름으로 되어 있고 문 역할을 하는 판막(瓣膜)이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심장

이 수축하게 되는데 그 수축을 일으키는 것은 근육으로 되어있는 심근으로서 가장 두꺼운층입니다.

심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속의 어딘가에 이상이 오는 것으로 심외막에 오는 심외막질환, 심근에 오는 심근질환, 심막에 오는 심내막질환, 판막에 오는 판막증, 심장혈관에 오는 관상 동맥성 심장병 등이 있습니다.



혈액을 충분히 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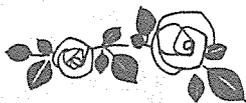
폼푸로서의 심장의 활동이 불충분하게 되면 심장에서 송출된 혈액의 양은 몸의 요구량에 비해 부족한 상태가 되고 특히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1분에 내어보내는 혈액량(心拍出量)은 모든 조직과 장기가 필요로 하는 혈액량의 요구에 맞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심장질환(동맥경화증, 고혈압성,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 경색증, 각종 류머티스성 심장판막증, 심근염, 심내막염, 폐성 심질환 등)이 있으면 폼푸로서의 기능이 약하여져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전신 장기에 충분히 송출을 못해 심박출량이 감소되고 몸이 요구하는 만큼의 혈액량을 내보낼 수 없어 여러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심부전증이라 합니다.

○ 심부전증이란

여러가지 심장병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언제나 여유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운동을 한 다든가 몸에서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심장의 박동이 강하게 되고 또한 그회수가 많아져서 보통때보다도 많은 혈액을 송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장의 예비력이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이 예비력이 상당히 크므로 대체로 언제나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병이 있으면 이 예비력이 감소해 몸에서 혈액을 요구하여도 심장 쪽에서 이에 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심부전증의 상태입니다.

심장에 오는 병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성 심질환

고혈압증이 오래 지속되면 언제나 높은 압력을 이겨내도록 심장이 활동하여야 하기때문에 심장이 비대해지며 나중에는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여 충분히 혈액을 보낼수 없게 됩니다.

2. 류마치스성 심질환

류마치스 열(熱)이라는 병은 심내막염을 일으키고 이것이 판막까지 미치면 판막증이 됩니다.

처음에는 판막이 좁거나 잘닫치지 못하여도 비대하여 강한힘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어 잘건디나 나중에는 심장이 지쳐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